



第13回 發明教室 盛了

3月 9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3月 9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13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많은...○
- ...아마추어 發明家들이 參席하여 發明家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질의 응답을...○
- ...통하여 아이디어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는 자리로서 이번...○
- ...에도 많은 사람들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洪載日...○
- ...辨理士의 特許出願節次에 대한 講議에 이어 太一化學 崔二淳사장의 成功事例...○
- ...發表와 호상례저 洪光善사장의 成功事例發表가 있었다.○
- ... 崔二淳사장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洪光善사장의 事例는 本誌「당신...○
- ...도 發明王」欄에 紹介되어 本欄에서는 생략했다.○

아크릴樹脂의 무늬形成法과 轉寫方法

七顛八起의 오뚜기發明家出身 企業人



崔 二 淳
〈太一化學 社長〉

世界最初 아크릴 樹脂轉寫 方法開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갈수록 더욱 다양한 품종의 합성수지제품이 개발 생산되고 있다.

합성수지의 일종인 아크릴수지는 합성수지중 인체에 주는 피해가 전혀 없는 수지로서 선진국에서는 의안, 의발, 의치 및 의료용기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크릴수지의 원료는 액체상태이므로 분말인 PVC에 비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문제

점을 안고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아크릴수지에 천연색사건이나 그림을 침투시키는 아크릴수지 전사방법을 개발 이를 기업화시켰다. 더구나 아크릴수지 전사방법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세계최초의 발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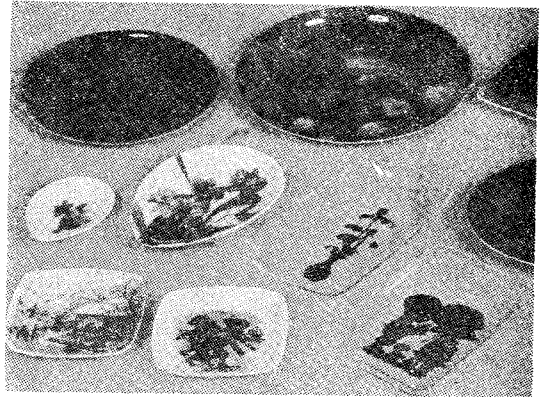
멜라민수지나 PVC수지의 전사방법은 외국에서도 개발되었으나 아크릴수지의 경우 본인이 세계최초로 지난 75년 개발 79년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발명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 아크릴수지 전사방법은 칼라사건이나 그림등을 아크릴제품속에 침투시킴으로써 벗겨지거나 변질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잘 깨어지지 않고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회사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에 공장대지 1천평 건평 480평 규모로 도시락, 정반, 찬함등 60여 종류의 주방용 아크릴수지 전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 84년 약 4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우리회사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아크릴원료로 각종 주방용 아크릴 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한편 이 제품에 천연색그림등을 전사한 완제품을 생산 국내시장에 출하고 있다.

特許登錄 2件등 工所權 14件登錄

모든 발명이 다 그렇듯이 아크릴수지 전사방법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지난 60년대초 육군대위로 전역한 본인은 평소 부터 관심을 갖고있던 아크릴수지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년간에 걸친 어려운 연구끝에 아크릴판 제조방법과 판에 무늬를 형성하는 방법을 개발 그중 무늬형성방법은 지난 72년 9월 특허 제3819호로 등록됐다. 이 아크릴수지 무늬판 발명에 따라 아크릴수지 무늬판을 이용한 주방용품 생산시설을 확장 성남공단에 2천여평의 공장부지를 마련해 공장을 증축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확장과 매마침 밀어닥친 73년 1차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도산이란 혹심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맨손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10여년의 아크릴수지 연구를 통해 축적된 전문기술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이번에는 다양한 색채와 무늬를 아크릴수지에 침투시키는 아크릴수지 전사방법연구에 도전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새로운 연구분야였다. 수십차례 연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어떤 조성의 염료는 아크릴수지와 결합하여 선명한 색상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염료중 수지와 결합하여 원색을 이루는 염료를 찾기위해 국내 염료상은 물론 외국의 염료제조업체에까지 샘플제공을 요청했으며 입수한 염료중 수지에 적성을 가진 염료를 찾아냈다. 그래서 지난 75년 아크릴수지 전사방법을 개발한 본인은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다음 특허를 출원 79년 11월 “아크릴수지에 대한 전사방법”으로 특허 제7256호를 등록했다. 76년 4월 설립된 우리회사는 아크릴수지 전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인크도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아크릴수지 전사방법 연구와 관련 특허 2건, 의장 10건, 상표 2건 총 14건의 공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현재 5건의 공소권을 특허청에 출원해놓고 있다.

海外市場 본격개척

이 아크릴수지 전사방법개발로 지난 82년 9월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에서 금상(상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제네바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도 은상을 수상한바 있다. 제네바 국제 발명품 전시회 수상이후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문의편지가 쇄도함에 따라 우리회사는 지난 84년도부터 수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출입업 등록을 하였으며 84년도 수출은 6만불 실적을 올렸고 85년도는 수출목표를 약 20만불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의 유명회사와 플랜트수출을 추진중에 있으며 수주예상액은 기계설비 및 KNOW-HOW에 대한 ROYALTY로 50만불 상당의 PROJECT가 추진중이다.

우리회사는 생산원가만 절감시킨다면 대량수출의 길이 열릴수 있다고 보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이미 종래 수동

식이던 아크릴수지 제품성형기를 자동식기제로 개조하여 생산능력을 크게 높였다. 이같은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의 자동화는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판매기반의 구축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우리의 각오

우리회사는 소비자에게 더좋은 상품을 공급함은 물론 높아가는 무역장벽을 딛고 일어설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열성이 높은 아크릴수지의 개발과 전사기술의 고도화등 신제품개발을 자체연구진에 의해 수행,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아크릴수지에 도전한 이래 무려 20여년만에 오늘의 태일화학이란 VENTURE-BUSINESS의 토대를 확립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특정분야에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대기업과도 뺨뺨이 경쟁해 나아갈수 있음을 입증하겠다. ☞

(案) 英 工業所有權法令集 發刊 (內)

本會에서는 1981年 5월에 이미 英文工業所有權法令集을 發刊한 바 있으나 그간 審査請求制度和 出願公開制度의 採擇 및 特許協力條約(PCT) 加入등으로 인하여 대폭적으로 法令이 改正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빌어 用語를 좀더 정선하고 現行法令에 부합되도록 改正 補完하는 한편 特許法등 工業所有權基本法外에도 施行令까지 追加하여 다음과 같이 改正 英文工業所有權法令集을 發刊하였으니 必要하시면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製作方法 : 4·6倍版 紙質 : 모조
2. 面 數 : 162面
3. 價 格 : 4,000원
4. 問 議 : 韓國發明特許會 公報普及課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電話 : 557-1077/8